**일병목회강좌 히브리서 2강**

2019. 4. 18

**1. Prologue**

**1) 안목**

- 신앙을 가지고 신학을 하면 어떤 규칙이나 모범|구원관이나 종말론이나 예정론 등|에 붙잡혀서 기독교와 복음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안목이 없어지기 쉽다.

• 주로 선교와 구원의 확신 문제 정도에 묶여 있다.

- 기독교는 신이 세상을 인간과 함께 만들어가자고 하는 종교이다. 어떤 종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이 없다.(『성경 한 걸음』, 레슬리 뉴비긴 저)

• [창조-타락-약속-구원-교회-종말]의 여섯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느낌과 안목을 가질 수 있다(『성경은 드라마다』, 마이클 고힌, 크레이그 바톨로메 공저).

• 인류 역사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인가,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생각하게 할 수 있다.

**2) 시간의 역순**

- 태어나는 것은 아담의 후손인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 예수는 이미 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죽으셨는데 그 효과를 시간 속에서 어느 날 나를 만나주신 것이다.

•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적으로는 미래적인 것이 과거에 약속된 완료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오늘 처음 시작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일이 내게 시간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 구원받은 다음에 아무도 그냥 가지 않고 현실을 살면서 고생하다가 죽어야 한다.

• 예수를 믿었고 확신과 헌신을 약속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헌신과 고백이 보상되지 않는가?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뭘 잘못했는가?

-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했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복이 되겠느냐고 이야기함으로써, 천국에 데려가는 얘기가 아닌 살아있는 지금, 오늘, 현재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편을 들고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소개한다(로마서5장).

**2. All about**

**1) High Priest**

- 히브리서의 가장 큰 증언은 예수님이 너희의 현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며, 예수의 대제사장직을 강조하고 있다(히2:14-18).

• 시험 받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 감각이 없다.

- 너희가 필수적인 과정 속에 있다.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간이다(히3:1).

• 자라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니 툭 털고 일어나 걸어야지, 모태로 들어가 다시 태어나려고 하지 말라.

-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시련 속에서 커나가도록 되어있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장직으로 그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형편을 이해한다고 말한다(히4:14-16).

- 현실에는 우리의 고백과 충성이 있고, 동시에 위협과 도전과 시험과 실패와 눈물과 자폭이 있는 과정이다(히5:7-10).

• 사람을 만드는 최고의 재료는 절망이다.

-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고난과 실패 속에 있다는 사실이 위로를 준다(히6:17-20).

- 예수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다. 우리를 구원하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에 있어서 그의 대제사장직은 취소될 수도 없고, 방해 받을 수도 없고, 또 다시 해야 될 필요도 없다(히7:24-28).

- **히브리서의 요점**은 이것이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영광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이다(히8:1).

•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실패도 다 우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이니 겁내지 마라.

• 구원도 성자가 죽어서 이루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전으로 만든 것같이, 우리를 완성하는데도 우리 생각에는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는 실패나 후회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만들어가는 현실이다.

- 믿음이란, 은혜로 시작하여 책임을 목적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책임을 열매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 책임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다.

- 예수를 모르면 결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부끄럽게 살고 헛되게 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나면 명예와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대단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 복음의 자랑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명예와 위대함과 영광으로의 부름이다.

- 본인이 정당함을 넘어서 명예와 실력과 책임을 가지지 않으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다.

• 우리만이 사랑을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와 요구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정당함, 진지함, 깊이, 분멸, 명예와 같은 것들이 쌓여야 나오는 위대함으로 부름 받고 있다.

-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서, 지금 그 효과가 그가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같이 그 약속과 운명 속에 있으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편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히9:23-26).

• 십자가를 논하지 않고 계속 대제사장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이 그의 죽음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다음 과정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며, 우리를 거기서 격려하는 것이다.

- 지금이 어느 때이냐? 너희 인생이 예수 믿고 남은 인생이 심판 때까지 뭘 하는 때인지 그 기간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라(히9:27-28).

• 현실을 중요시하라. 이 세상,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그렇게 만들 것이다(월터 브루그만).

• 시편(시105:17-19)이 전하는 요셉의 인생은 수동태이다. 그 수동태 인생이|좌절과 절망의 골짜기와 고개를 지나는| 요셉을 단련시켰다.

-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에게 붙었다 끊어졌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못났다 괜찮았다 하는 것이다(히10:12-18).

• 운명이 바뀌는 실수를, 십자가를 무효화하는 실수를 할 수 없다.

**2) Glory**

**① Destination(목적지)**

- 고난의 현실이 필요한 것은 영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창조의 원래 목적이 영광된 자리이다.

- 영광이라는 자리는 순종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길을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다(롬8:17).

•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기도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길을 선택하면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려는 묘한 기만이 숨어있다.

• 하나님은 선택 자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어느 길로 가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큰 차이가 없다.

• 어떤 명분이나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이 생겨야 한다. 실력은 명예로워지는 것이다.

- 남극대륙 횡단에 도전했던 쉐클톤(Sir Ernest Shackleton)의 도전과 인내와 동료애는 그의 탐험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 4위에 위치시켰다.

•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업적이 아니다.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주어진 길을 누가 명예롭게 가느냐이다.

•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떤 선조들을 두셨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나큰 비밀과 기적들을 나타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보다 중요하게 예수님마저 봤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때 멋있게 굴라는 것이다.

**② 문맥을 통한 수긍**

- 찬송한다는 것은 항복하는 것이다.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승복하는 것이다(엡1:3-6).

• 왜 인류가 이러냐? 타락해서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떨어졌다. 그러자 모든 것이 썩게 되고 더러워지고 부끄럽고 비참하게 되었다.

• 왜 하나님이 허락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 책임은 자유가 허락되어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책임이다.

• 그 자유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었다. 아담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선택까지 할 수 있었다.

•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를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선택을 하셨다. 자유로운 선택을 한 것이다.

-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있어서 예수가 최고의 설명이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낮아져 우리를 편드는 자리에 오시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 고난에 참여하고 심지어 우리 대신 죽는 자리까지 오실 수 있는 분이다.

- 얍복 나루에 선 야곱에게 하나님이 ‘네가 결정하고 네가 살아본 인생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이다.

• 야곱이라는 이름은 약탈자 날강도라고 의역할 수 있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자, 의지할 데 없는 자, 고아와 같은 자라는 뜻이다.

•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는 너를 고아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다’고 한 셈이다.

• 우리 인생 속에서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를 살게 된다. 그들과 똑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들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그의 영광의 찬송으로 드러나는 존재를 우리에게 목적하고 있다(엡1:11-14).

•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명예로운 선택을 하기 원하고, 선택을 하려면 자유가 필요하고, 그 자유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십자가로 구원한 생명들 앞에 현실을 어떤 기준 어떤 이해와 어떤 안목과 어떤 책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다.

- 교회는 공동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목적이며 예수님의 몸이다(엡1:17-23).

•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은 ‘내가 내 몸으로 인하여 충만하지 않고는 혼자는 충만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이다.

-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는 이 속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엡3:14-21).

- 옛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죄를 많이 짓거나 덜 짓거나 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 새사람은 죄를 따를 것인지 의를 따를 것인지,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것인지 명예의 자리로 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엡4:17-24).

• 지금도 죄에게 질 수 있다. 부끄러운 짓이다. 부끄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의 차이를 점점 알게 된다. 보상의 원리보다 큰 차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 인문학을 통해 인간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용감함과 정의를 추구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보다 큰 가치를 위하여 고민하고 희생하고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원은 있지만 답이 없고 실력도 없다. 그래서 비극일 수 밖에 없다.

• 예수님은 무덤에 부활을 심으심으로 우리에게 헛됨이나 실패나 비극이 없다고 선언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3. Epilogue**

**1) 시간, 우리 편 되다**

- 모든 세상의 위협과 도전을 이 극복,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이 부활을 여는 문이라는 것을 아는 이 연결이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우리 경우에서, 우리 실력에서, 우리 고통에서, 우리 절망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는 것이다. 장장(長長) 열 시간이란 표현처럼..

-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그것보다 더 나은 하루를, 실수와 절망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세상이 현존하는 것이다.

- 악이 득세하고 위협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 속에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비극과 모든 왜곡과 거짓들을 통째로 |예수가 육신으로 오셔서 배신당하고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뒤집어서 그것보다 큰 세계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와 구원이다.